

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

인적사항	성 명	정다정	학 번	201711525
활동내용				
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				
<p>2018년 1월 30일-2월 3일까지 약 3시간이 걸리는 가까운 나라 대만을 4박 5일동안 여행 다 왔습니다. '까르푸', '세븐일레븐'과 '스린 야시장'등 여러 곳들을 통해 이번여행의 목표 중 하나인 전공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.</p> <p>한국에는 다소 여러 브랜드의 편의점이 분포되어 있지만 대만에서 편의점은 거의 대부분 '세븐일레븐'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간간히 '패밀리마트'도 보였지만 세븐일레븐 단독 브랜드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. 한국의 편의점은 여러 브랜드가 존재하는 만큼 그 편의점에만 존재하는 특정 브랜드 상품이 존재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대체로 시설도 좋았고 편리해 보이고 눈에 띄는 별미들, 편의식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</p>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				
<p>대만편의점에 방문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위 사진들처럼 간단하지만 조리되어 지고 있는 음식들이였습니다. 여러 종류의 어묵, 핫도그, 옥수수 구이 등 다양한 식품들이 존재했습니다. 편의점 음식들이 매우 간편하고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레트로식품, 간편 식품을 넘어서 이런 식품들도 함께 판매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</p>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				
<p>물론 대만 편의점에도 한국 편의점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의 삼각김밥, 도시락, 즉석식품 등이 존재하였습니다. 또한 날개로 파는 과일, 썰어져 나온 과일 등 1인가구와 바쁜 현대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식품들도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.</p>				



대형마트인 까르푸를 방문하였는데 대만식품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존재하였습니다. 그 중 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산 제품들로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저도 모르게 일본 산 식품들을 구매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 친숙한 정도가 대만제품보다 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마트에도 정말 다양한 나라의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 해외여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의 식품들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고 차별화를 두는 한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개발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

대만이라는 나라로 여행지를 선정하고 여행을 계획하며 가장 기대가 컸던 곳 중 한곳은 바로 야시장입니다. 대만은 야시장이 활성화 되어있고 그 수도 많은데 그중 가장 크고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'스린 야시장'에 방문하였습니다. 전주에도 남부 야시장이 있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많은 종류의 길거리 음식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여러 음식들 중 특히 새송이 버섯구이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 호기심에 20분정도 기다려 구매를 했습니다. 평범한 식재료지만 특별한 조리법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. 또한 위의 세 번째 사진처럼 쭈꾸미가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는 타코야끼처럼 눈길을 사로잡는 음식들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.

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

이번여행은 다른 여행과 비교하였을 때 확실히 많은 생각을 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여행 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해외의 전공 관련 시설을 방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가던 편의점, 마트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. 2학기 때 배웠던 전공 수업 중 배운 식품산업의 트렌드, 전망 등 조금의 배경지식을 활용했습니다. 직접 보고 느끼며 그 나라만의 특수한 농·식품 산업을 엿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생각해보기도 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.

친구들과는 처음 떠난 해외여행이었습니다. 보호자 없이 저희들 힘으로 계획부터 실행하기 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졌습니다. 낯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힘을 합쳐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력,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힘든 일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이해하며 우애도 더욱 돈독해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원래 계획적이기 보다는 즉흥적인 생활, 여행을 좋아하였지만 이번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하여 일처리 하는 것에 중요성과 편리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계획을 하여 할 일, 갈 곳을 다 정해놓고 간 여행은 보다 여유롭고 순조로웠습니다.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조금은 성장하고 돌아온 거 같아 뿌듯합니다.

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여행을 가서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과 관련하여 탐구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번 여행뿐 아니라 또 방학을 통해 해외에 나간다면 전공 관련시설을 방문해 한국, 대만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농·식품 산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계속 다양한 전공과목을 학습할 것이고 더 넓어진 배경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여러 지식을 적용해 바라보는 모습이 기대됩니다.